

우석대 백종남 교수, 한국행동분석학회 취임

우석대학교 백종남(특수교육과) 교수가 한국행동분석학회에 취임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행동분석학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백종남 교수를 선출했다. 임기는 2023년 8월까지 2년간이다.

신임 백종남 한국행동분석학회장은 "한국의 문화와 법률,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윤리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며 "학문적 네트워크 확장과 한국행동분석전문가(KBA) 자격증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행동분석학회(Korean Association for Behavior Analysis)는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한 지적장애와 자폐스펙트럼장애를 비롯한 발달장애 학생들과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 성인에게 효과가 검증된 응용행동분석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보급하고 가정과 학교, 시설 및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문제행동 원인 분석과 중재를 담당하는 행동분석 전문가를 양성을 위해 2013년 7월 창립했다.

/정은성 기자



틈새 돌봄 '익산 공동육아나눔터' 인기

돌봄공동체 구축, 육아 품앗이 활동... 경력단절 여성·중장년층 취업지원 역할도

익산시가 운영하는 대표 지역 돌봄 체계 시스템인 공동육아나눔터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익산시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돌봄 기능을 폭넓히 해내며 가정 양육과 맞벌이 부모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공동육아나눔터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은 물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익산 남부시장 2층에 위치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은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다양한 체육 도구를 활용해 아동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두리우리 놀이체육', 엄마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되는 '동화로 배우는 영어' 등 상시 프로그램을 통해 품앗이 회원들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장난감·도서 대여 등 돌봄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하고 있다.

장난감은 한 가정당 아동수에 따라 1점~3점 대여하고 있으며 1점당 1,0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도



서는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1호점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소용 친구 역할 뿐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 역할도 하고 있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프로그램에 부모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러더 양성 교육으로 사회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제일로타리-구미선주로타리, 합동주회 실시

3670지구 전주제일로타리클럽(회장 김정민)과 3630지구 구미선주로타리클럽(회장 전병인)은 지난 3일 진안고원치유소에서 합동주회를 가졌다.

자연보호 캠페인을 겸한 이날 행사에서는 숲속 걷기와 스레기 활동을 병행했다.

또한, 진안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느끼며, 영호남인의 친선을 도모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김재훈 기자·진안=우태만 기자



이북산장학회, 하반기 1980만원 장학금 지급

재단법인 이북산장학회(이사장 성하익)는 4일 하반기 장학금으로 1,980만원을 보내 29개교 39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창립 16주년을 맞아 장학생 176명을 배출했으며, 대학생 회원 61명에게는 연수비 100만원을 지급하는 해외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23년도 대학 진학 상황을 살펴보면 전북대학교 나현서, 원광대학교 도희진, 이대근, 성규관대학교 박상민, 서울시립대학교 유하영, 우석대학교 주은혜, 부산대학교 백승준, 최은호, 건국대학교 김대환, 전주교육대학교 김소희 등이 있다. /정은성 기자



이리동중 동산드림오케스트라 등꽃길 윈드콘서트

이리동중학교 동산드림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등꽃길 윈드콘서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등꽃길 윈도우 콘서트는 본관 앞에서 풀 오케스트라로 이뤄졌다.

이리동중 동산드림오케스트라는 2014년 교육부지정으로 올해 10년째 운영, 1~3학년 총 80여 명의 단원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단원들 대부분이 중학교에 올라와 처음 악기를 다루지만 매주 점심시간, 방과후 연습을 통해 실력을 연마하고 있다. 구성은 현악기(제비이울린, 제비이울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관악기(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트럼펫, 트럼본, 호른), 타악기 파트로 구성된 풀 편성 오케스트라다.

동산드림오케스트라를 지도하고 등꽃길 윈도우콘서트를 주최한 음악과 김기갑 선생님과 김은민 선생님은 "점심시간마다 쉬지 않고 연습에 참여해 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너무 기쁘고 대견하다"며 "등꽃길 윈도우콘서트가 단원들의 실력향상과 단합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윤자 교장은 "동산드림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멋진 연주로 9월 내내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다"며 "등꽃길 윈도우콘서트를 열심히 준비해 준 학생들과 지도교사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동산드림 오케스트라는 10월에 전북학교예술 페스티벌과 12월 정기연주회, 그리고 내년 전국대회 참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있어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정은성 기자

양오봉 전북대 총장 등, 개학 맞아 학생들에 간식 나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4일 긴 여름방학을 끝내고 새 학기 힘찬 첫 걸음을 시작한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며 환영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부터 양오봉 총장과 본부 보직자, 그리고 학생자치기구 임원들은 정문과 서문, 북문, 동문 등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2,700명 분의 빵과 에너지바, 음료 등 전달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날 간식을 건네받은 한 학생은 "총장님께서 호프데이 행사, 중간·기말고사 간식 나눔, 천원의 아침밥, 글로벌 캠퍼스 사업에 대한 별도의 학생 설명회, 그리고 새 학기 환영행사까지 진심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 밀착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주 감사드립니다"며 "덕분에 활기찬 새 학기를 맞게 돼 이번 학기는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우리 학생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새로



운 시작을 함께하기 위해 나섰다"며 "활력이 넘치는 학생들과 서로 눈을 맞추고, 손을 맞잡으며 더 큰 힘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임영술 국제금속 대표, 무주군에 장학금 1억원 기탁

무주군은 (주)국제금속 임영술 대표가 지난 2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임영술 대표는 "꿈은 타향에 있지만 고향 인재들의 꿈을 응원하고 또 이들이 미래 비전을 찾아 나가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 마음을 전하게 됐다"며 "우리 학생들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시 아이들과 교육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장학금이 잘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황인홍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이사장(무주군수)은 "고향 사랑 인재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을 기반으로 양질의 장학사업을 펼쳐 우리 아이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주)국제금속은 지난 2008년도에 설립돼 약 2천여 원 이상의 매출 실적을 달성한 지원순환 및 자원재생 선두기업으



로 1억 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수출경제에도 이바지하며 현재 동종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전북도민체전 자원봉사 운영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는 김제 일원에서 펼쳐진 2023 제60회 전북 도민체전 경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9월 1일에서 3일까지 3일간 김제에서 실시된 제60회 전북 도민체전은 39개의 종목으로 진행되었으며 그중 27개의 종목에 총 216명의 자원봉사자가 배치되어 각 경기 운영 보조와 환경 정화, 행사장 안내, 질서유지 등 원활한 체전 운영을 위해 힘썼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